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과 금산융복합 현상

박선영 (동국대학교)

윤선중 (동국대학교)

*빈기범 (명지대학교)

해외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사례

글로벌 빅테크 기업

❖ FAANG, MAAGA, FAAGA

- Facebook, Apple, Amazon, Alibaba, Microsoft, Google, Netflix,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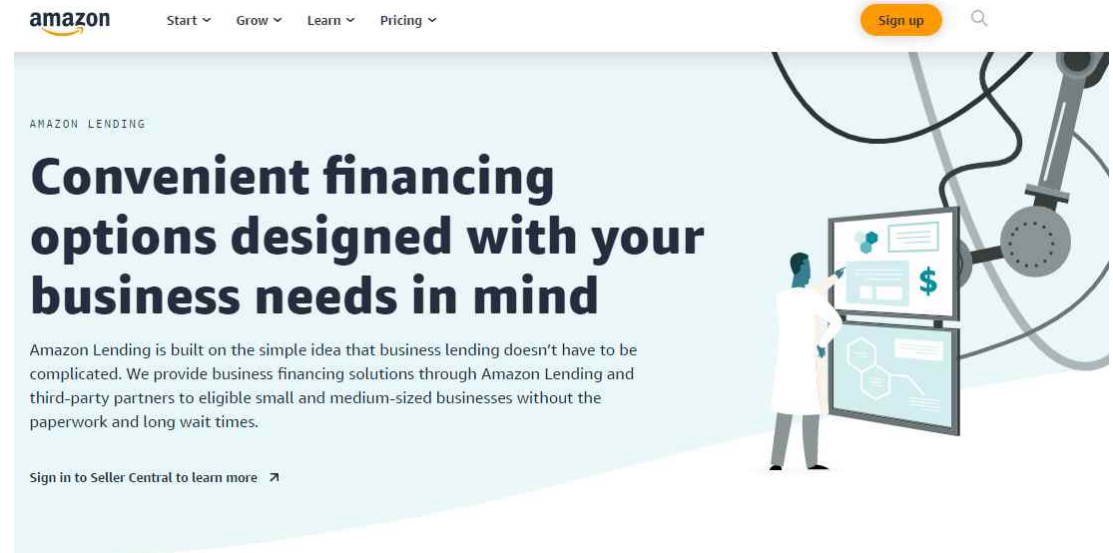
- ❖ 상기 글로벌 기업 모두 모바일, 무선 통신, 데이터, 컴퓨팅, AI, 자율기계, 클라우드 등에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선도
 - 한국에서는 주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쿠팡(미국 본사, 미국 상장) 등

Amazon

- ❖ 일반 고객수 3억 1천만명, 프라임 고객 1억명, 판매자 5백만명, Amazon Pay 고객수는 170개 국가에서 3천3백만명
- ❖ (아마존의 주요 금융서비스) 아마존은 기존 금융회사와의 파트너십 구축하고, 플랫폼으로서 소비자 데이터 축적
 - Amazon Go: 매장내 자동인식과 결제 시스템
 - Amazon Pay: 지급서비스로 인도에서는 Cashload 서비스, 멕시코에서는 Debit card 제공
 - Amazon Cash: 현금과 코인을 아마존 기프트카드 혹은 신용으로 전환하여 현금의 예치로 사용
 - Amazon Allowance: reloadable debit card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제공 가능
 - Amazon.com Store Card: 은행과의 파트너십으로 제공되는 고객카드로서 일상적인 구매에 활용
 - Amazon Lending: 아마존 플랫폼의 상품판매자(third party merchants)에 대한 대출
 - Amazon Protect: 판매상품의 파손 및 분실 등에 대한 보험

❖ Amazon Lending

- 2018년 Bank of America 산하 Merrill Lynch와 제휴
- 2020년 이후 Goldman Sachs와 제휴
- 대출금리: 3%~16.9% APRs
- 대출잔액: 3조 달러 (추정)
- 아마존 납입실적과 판매수입에 기초하여 아마존이 초청하는 자에 한하여 대출
 - ✓ 대출신청을 하도록 초청을 받아 지원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결정. 결정이 되면 당일 즉시 자금 대여
-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에서도 중소기업 대출 서비스를 제공, 인도와 멕시코에서는 지역은행과 협력하여 대출서비스 확대
- 2020년부터는 Goldman Sachs가 전담하여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 자산관리서비스는 Fidelity Labs, 보험서비스는 London General Insurance Company 등과 제휴하여 제공



Facebook

서비스명	기능	주요내용
Friend-to-Friend Payment	송금	'Messenger' 앱에 체크카드를 연동해 사용자 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Charged Program	소액대출	핀테크 업체 클리어뱅크(Clearbanc)와 제휴 SME의 광고비를 후불로 지불받는 서비스 일정 수수료(5-10%)를 클리어뱅크에 지급하는 구조
전자화폐		아일랜드 중앙은행으로부터 전자화폐 취급기관(E-money Institution)으로 승인 획득(2016.10.24일) 전자화폐 발행, 송금, 지급결제 서비스 등을 '패스포팅(Passporting) 권한'에 의해 EU회원국 전역에서 가능해짐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담부서를 신설('18.5월)하여 유저간 전자결제 수단으로써 암호화폐 발행 가능성 시사하였으나 규제 환경의 변화로 표류 중

* 미국 빅테크로서는 다방면의 금융서비스 제공 중

Google

서비스명	기능	주요내용
Google Pay	송금 및 지급결제('18)	P2P송금, NFC 지원 모바일 기기 접촉을 통한 결제 서비스
Lending Club Program	신용대출('15)	광고주들 상대로 운전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서비스 P2P 대출업체 '렌딩클럽'과 협업

* 구글 페이와 신용대출에 국한

Alibaba

서비스명	기능	주요내용
AliPay	송금 및 지급결제	은행 계좌 및 카드와 연동시켜 온 오프라인 결제, 송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자산운용 등이 가능한 알리바바 모든 금융서비스의 플랫폼 역할
AliFinance	소액대출	알리바바(B2B), 티몰(B2C) 등 입점업체 대상으로 자체 신용평가를 거치는 소액대출 서비스(최저 연 4.5%)
즈마신용 (芝麻信用)	신용평가	자체신용평가서비스로앱에서개인신용등급을실시간확인 가능(평가기준 : 전자상거래 거래내역, 알리페이 잔고 등)
위어바오	자산운용	알리페이 계정내 여유자금을 위어바오에 이체하여 MMF로 운용하는 구조(텐홍자산운용(天弘基金)과 제휴)
보험		알리바바, 텐센트, 평안보험이 합작투자해 중국 최초의 인터넷 전용 손해보험사, '중안보험'을 설립 알리바바는 입점 판매자 및 소비자를 고객으로 유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평안보험은 보험상품 설계 담당

알리바바와 자회사 엔트파이낸셜



해외 주요국 빅테크와 금융서비스

빅테크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Big tech	Main business	Banking %	Credit provision	Payments	Crowd-funding	Asset management	Insurance	
Google	Internet search/advertising	√*		√				미국
Apple	Tech/producing hardware			√				
Facebook	Social media/advertising			√				
Amazon	E-commerce/online retail		√	√	√		√	
Alibaba (Ant Group)	E-commerce/online retail	√	√	√	√	√	√	중국
Baidu (Du Xiaoman)	Internet search/advertising	√	√	√	√	√	√	
JD.com (JD Digits)	E-commerce/online retail	√	√	√	√	√	√	
Tencent	Tech/gaming and messaging	√	√	√	√	√	√	
NTT Docomo	Mobile communications	√	√	√	√			
Rakuten	E-commerce/online retail	√		√		√	√	
Mercado Libre	E-commerce/online retail		√	√		√		

출처: Crisanto, Ehrentraud and Fabian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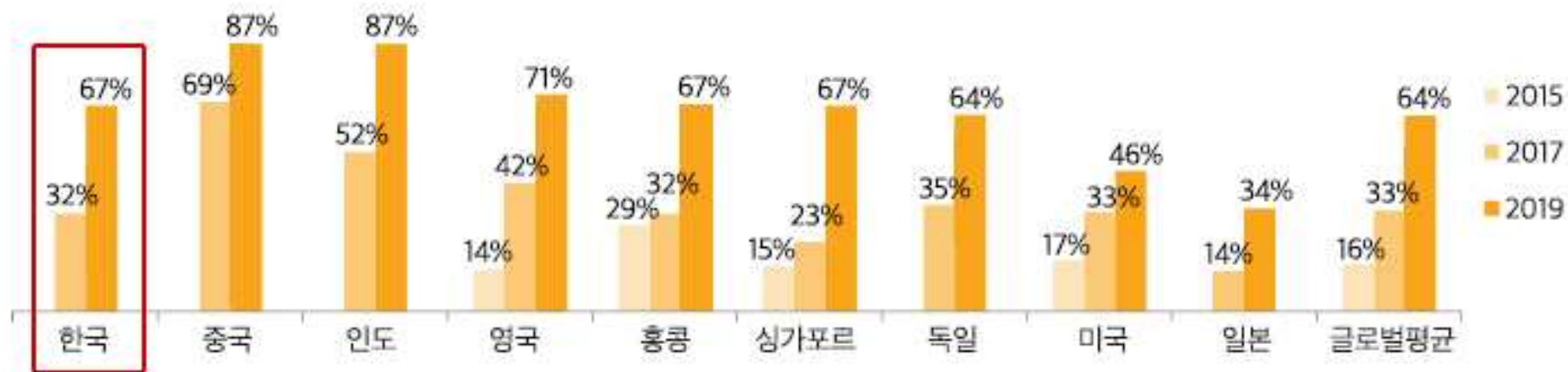
국내 핀테크·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사례

국내 ICT 기업의 금융서비스

[illegible]

한국 핀테크 산업의 국제 비교

국가별 핀테크 도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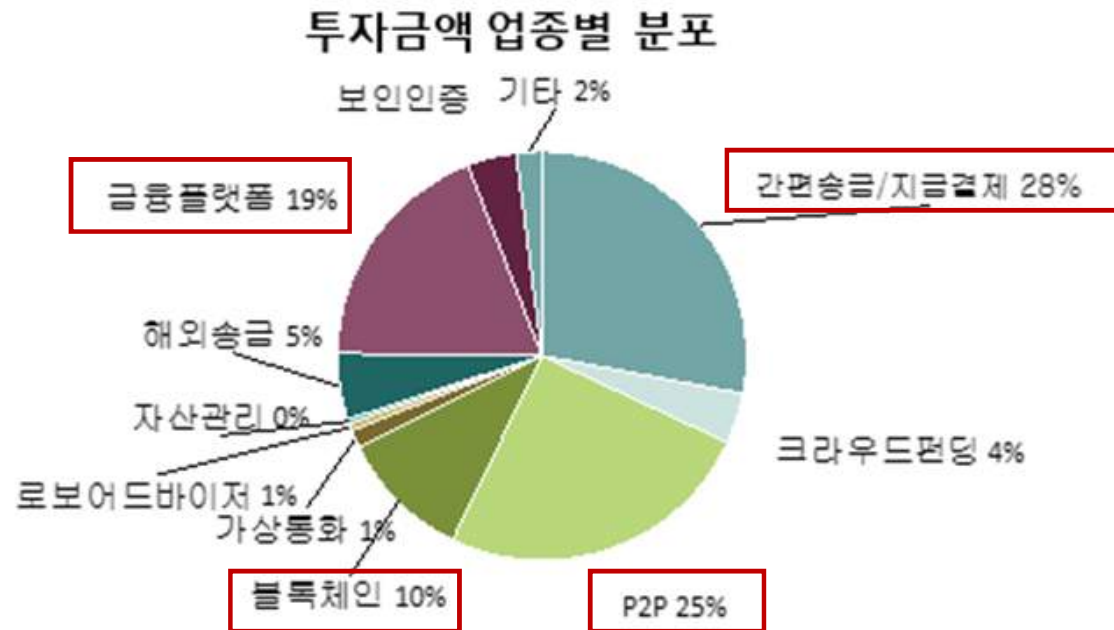


* EY(Ernst&Young) - 2019 Fintech Adoption Index (27개국 27,000명 대상 온라인 인터뷰 실시)

한국의 핀테크 분야 투자

❖ 핀테크산업현황조사의 핀테크 투자금액 2019년 업종별 비중

- 간편송금·지급결제(28%), P2P(25%), 클라우드펀딩(4%), 로보어드바이저(1%) 등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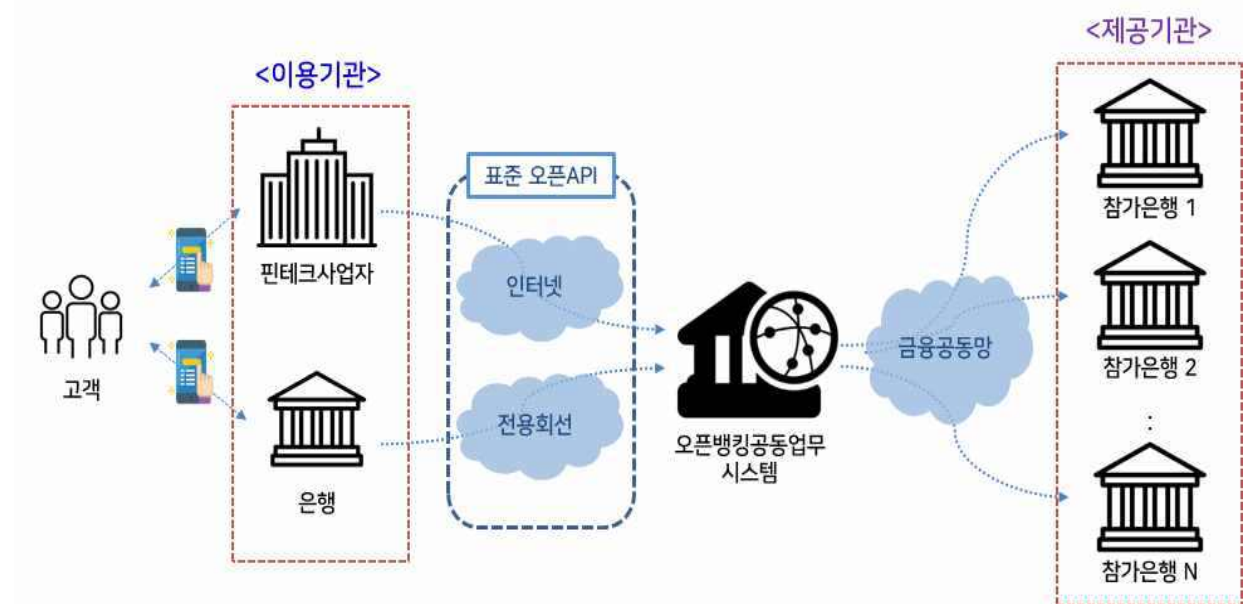
한국의 주요 핀테크 촉진 환경

❖ 오픈뱅킹 제도

-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거의 대부분 참여
- 비금융기관인 핀테크 업체(주로 전자금융업자, 통신판매업자)도 금융기관의 금융결제망(송금, 이체, 결제)으로 공통 프로토콜 오픈 API로 통신하여 접속 가능
 - ✓ 삼성페이는 참여하지 않음

❖ 오픈뱅킹으로 금융결제망이 사실상 개방되고 공유

❖ 추후, 여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외 업체는 처리 속도, 고객 편의성, 고객 네트워크, 보안 등이 주요한 관건



❖ 마이데이터

- 한국신용정보원이 지원
- 마이데이터 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
 - ✓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상호금융, CB사 및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기관
 - ✓ 핀테크 업체
- 인증서 제공 기관:
 - ✓ koscom,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 정보제공자:
 - ✓ 개인 요구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으로 매우 다양하며 공공기관도 포함
 - ✓ 건강보험, 세금(국세, 지방세) 관련 정보도 마이데이터 체제 하에서 국민건강보험이나 국세청 앱이 아닌 타 기관이나 업체의 앱에서도 조회 가능

소비가 접하게 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 ① 본인계좌정보 통합 조회



❖ **오픈뱅킹 & 마이데이터 제도는 핀테크·빅테크의 기술 혁신 유인을 자극하는 강한 기제이지만, 금산융복합을 버젓히 허용하는 무대**

한국의 주요 빅테크: 카카오

❖ 카카오톡(SNS&메신저)이 모든 사업의 기반

- 금융은 물론 국민 일상 생활의 전분야에서 플랫폼 가능한 잠재력
- 실제로 많은 영역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중
- 카카오페이에 의한 2020년 거래액: 약 67조원

❖ 핵심 금융계열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두나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사(설립 예정)

- 카카오뱅크: 2016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최초 설립, 2021년 8월 상장, 시가총액 27조원(2021년 11월)으로 기존 은행계 금융지주사의 시총보다 크게 높음
- 카카오페이: 2014년 서비스 시작, 2017년 분사, 2021년 11월 상장
- 카카오페이증권: 2020년 중소형 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 인수
- 두나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 중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
-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카카오페이 자회사로 설립 예정 (2019년에는 보험 스타트업 인바이유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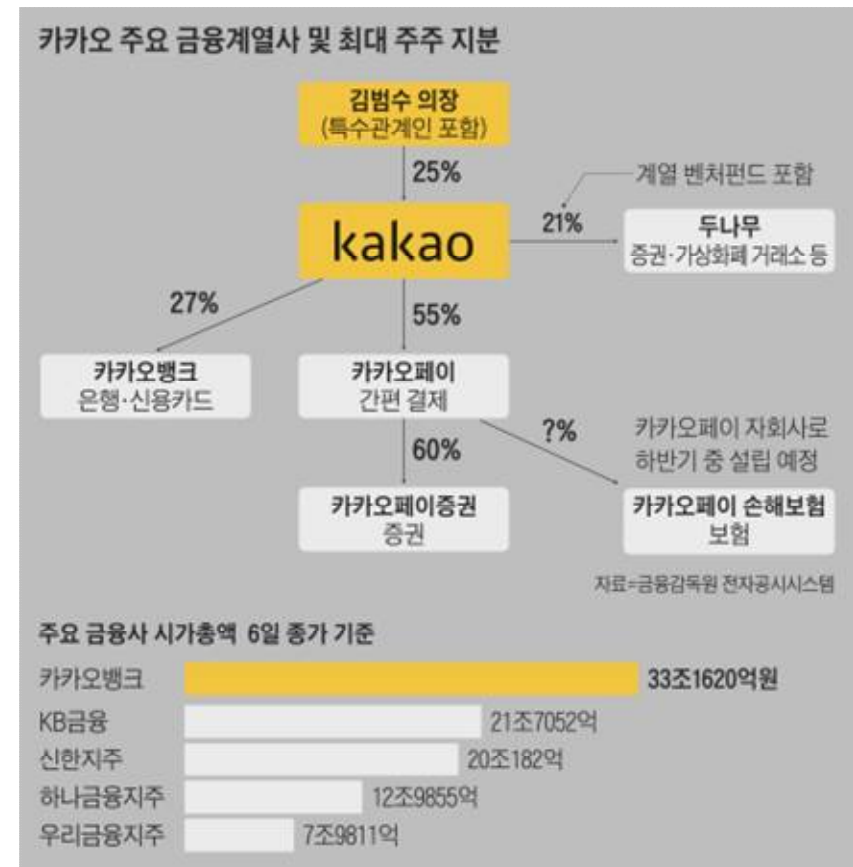
❖ 공정거래법 규제

- 카카오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에서 18위
- 계열사 수 128개

❖ 카카오의 핵심 금융 서비스

- 카카오뱅크: 여신, 수신, 이체(송금), 신용정보 조회, 현금 출금, 해외 송금, 체크카드, 제휴 (해외 주식 투자 계좌 개설, 증권사 계좌 개설, 신용카드)
- 카카오페이 및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톡(플랫폼)을 통한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에 기반한 금융 거래 및 잔고 조회, 신용 조회, 이체(송금, 충전), 결제 (온·오프라인), 통합자산관리, 금융상품 추천, 멤버십,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청구서, 대출 비교, 대출 조회, 인증서 관리, CMA 투자, 펀드 투자,페이체크카드,페이신용카드(카드사 제휴) 등 (주식 거래는 없음)
- 도나무: 업비트 거래소의 가상화폐 거래

❖ 카카오는 각 금융 서비스 기능별로 자회사, 계열사를 분사하거나 인수



출처: 조선일보 기사, 김신영 기자, 2021.8.8.

네이버

❖ 네이버페이

- 미래에셋대우증권과 제휴한 네이버통장(증권사 CMA 통장)이 네이버페이와 연계
- 충전, 송금, 결제(온. 오프라인), CMA 수익금, 각종 조회(보증 조회도 포함)와 관리, 멤버십 관리와 전환, 금융상품 추천, 계좌 개설 추천, 전자상거래. 쇼핑 및 배달 추천
- 네이버페이 제휴신용카드

❖ 기타

- 미래에셋캐피탈과 제휴, 소상공인 대상 중금리 대출
-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대출: 네이버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 3.2-9.9% 금리에 5,000만 원까지 대출
 - ✓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청을 받아 신용평가, 미래에셋캐피탈이 심사하고 대출
- 네이버는 소상공인 대출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모델인 대안 신용평가시스템(Alternative CCS) 활용
 - ✓ 신용평가사에서 받은 기존 자료에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의 매출 흐름, 단골 고객 비중, 고객 후기, 반품률 등을 결합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
- 비씨카드와 제휴 '오프라인 포인트 QR 결제': 오프라인 결제
- 우리은행과 제휴 '소상공인을 위한 1금융권 대출상품' 판매 예정

카카오 vs. 네이버

❖ 상반된 금융서비스 시장 진출 전략

네이버 금융 전략은 '제휴'	
네이버페이(가입자 2800만명, 제휴처 136만개)	
+ 미래에셋대우	→ 네이버통장(CMA) 출시
+ 미래에셋캐피탈	→ 소상공인 대상 2금융권 중금리 대출
+ 우리은행	→ 소상공인 대상 1금융권 중금리 대출
+ 비씨카드	→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 반환보증 간편가입
⋮	
카카오 금융 계열사의 역할분담	
은행	→ 카카오뱅크(가입자 1,300만 명)
핀테크	→ 카카오페이(가입자 3,500만 명)
증권	→ 카카오페이증권 (옛 바로투자증권 인수)
보험	→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예정,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인바이유 인수

출처: 포춘 코리아 기사, 임현우 기자, 2021.3.31.

정리

현안: 금융융복합 현상

- ❖ 모바일 기기, 빠르고 저렴해지는 무선 인터넷(5G, WiFi), 빅데이터, AI 기법, 컴퓨팅 속도 증대, 클라우드 서비스, 글로벌 SNS, 오픈 API와 데이터 개방, 모바일 온라인 플랫폼 등의 새로운 사회, 경제 환경의 도래 및 관련 기술 혁신의 가속화
 - 초연결(superconnectivity) – 기계와 기계, 기계와 사람, 사람과 사람 등
 - 데이터, AI, 컴퓨팅
 - 코로나19 위기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앞당기는 중
 - 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Microsoft, Google 등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
 - 금융은 물론 전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 (산업, 교육, 보건, 복지, 정치, ...)
- ❖ 국내외적으로 빅테크, 핀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현상 속도감 있게 진행 중
 - 소비자는 연결, 속도, 편의성, 수수료 등에서 빅테크,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환영

❖ 국내 금융융복합 현상

-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제도에 기반한 금융결제망(송금, 이체, 결제) 개방에 따른 금융산업 환경 변화
 - ✓ 정부가 주도하여 기존 금융기관 대부분을 포함하고,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다수가 참여
 - ✓ 금융기관, 빅테크, 핀테크 기업의 기술 혁신과 경쟁 가속화
-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기존 포털, SNS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지니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상업거래 및 금융거래 중개
 - ✓ 플랫폼에서 사용자 데이터의 축적
 - ✓ 금융계열사의 설립 또는 타 금융기관과 제휴
- “전자금융업자”의 적극적 금융산업 진출

❖ 핀테크·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시장 진입이 (1) 시스템 위험이나 (2)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전무

- 다만, 미국에서는 정부와 의회 주도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5개 패키지가 논의 중

- ❖ 기존 금융권(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은 오랜 기간 `독과점적 렌트`에 안주
 - 금융산업은 강한 인허가 규제, 높은 진입장벽, 정부의 보호, 암묵적인 보증
 - 1980년대 금융서비스와 2021년 금융서비스 유사, 각 기관별로도 유사한 금융서비스
 - 4차 산업혁명적 시대 변화에 둔감, 기술혁신 및 서비스 질 향상에 태만
 - ✓ 빠른 처리가 가능한 보안 기술 개발 없이 공인인증서에 오랜 기간 보안 의존
 - **기존 금융권이 금융인프라, 플랫폼을 독점하고 선점했음에도 이를 4차 산업혁명적 기술 진보로 이끌어내지 못했음**
 - ✓ 오픈뱅킹, 데이터개방에 참여하면서도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실패
 - ✓ 물론, 금융업으로 한정되는 한계는 있었음
 - 금융소비자의 불만 누적
- ❖ 기술과 환경 변화에 따른 핀테크·빅테크의 등장
 - 2000년대 중반 경부터 금융과 IT의 기술을 접목하는 신생벤처기업 등장 (핀테크)
 - 모바일 기기 발달에 따라 핀테크 기술, 범위, 규모, 질 증대, 소비자 환영
 - 신생벤처기업에서 시작했으나 이미 대기업으로 성장한 빅테크는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및 기타 상거래 중개 서비스 제공
 - 핀테크를 지원, 육성하는 방향으로 각국 규제의 변화

❖ 기존 `IT 기업`으로 불리던 기업의 실체가 경제적, 법적으로 점차 불분명

- 문제점이나 결함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며, 기존 틀이 맞지 않는 것
- 현재는 IT 기업이란 명칭도 마땅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
- 하드웨어(서버, 컴퓨팅 기기, 모바일 기기 등) 생산 IT 기업은 제조업
-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데이터 보관, 처리, 가공, 플랫폼, SNS, 거래 중개, 통신 등의 무형재화나 서비스 제공 IT 기업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생산하는 서비스업

정책 이슈 제기

이슈 제기 I: 전자금융거래법

❖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 기존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에 비하면 A4지로 20페이지 이하의 짧은 법률
- 기존에는 주로 영세한 소기업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전자화폐 발행업자만 인허가)
 - ✓ 소비자의 이용 횟수, 금액 등에서 매우 소규모
- 동 법에서도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기존 금융권)`를 구분
-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비해 중요성이 크지 않은 법률이었음

❖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볼 때, 전자금융거래법은 대단히 중요한 법률로 부상

• 핀테크, 빅테크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금산 접목의 시작점>

- ⇒ 선불충전금 수취 가능 ⇒ 오픈뱅킹 및 마이데이터로 금융결제망 접목
- ⇒ 자신들 고유의 포털, SNS, 플랫폼으로 각종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
- ⇒ 금융혁신, 소비자 후생 증대, 기존 금융권 위협
- 하지만, 금산융복합 현상에 따른 금융과 산업의 동반 시스템 위험 또는 지금까지 인지 못한 새로운 위험 증대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도 유사 ⇒ **전자상거래법 중요성 역시 증대**

❖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분명히 금융과 산업의 회색지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음

- 금산융복합의 시발점, 선불충전금 고객 보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논의 중
-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중요한 법률이지만, 어느 정도는 금산융복합 현상을 제어하는 노력도 필요

이슈 제기 II: 전자금융업자

❖ `전자금융업자`의 경제적 실체는?

- IT 기업 vs. 금융업자
-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vs. 금융자본(금융주력자)
- 토스뱅크 1차 인가 실패 주요 원인: 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가 60% 지분 보유, 비바리퍼블리카는 전자금융업자 (스스로는 금융주력자임을 주장)
- 현재 체제 하에서는 케이스별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금융당국이 판단
- 원칙은 불분명하고, 금융당국이 0 아니면 1의 판단
- 전자금융업자 중 **선불충전금 수취 기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논의 중)** 등은 상당히 금융기관의 행위에 가깝지만, 정부의 인허가, 건전성 규제는 사실상 없거나 약함

❖ 금융기관(금융자본)의 본질

- 국가의 강한 인허가, 건전성, 행위(소비자 보호 포함) 규제 ⇒ 사실상 국가의 암묵적 품질 보증
- **금융기관 신용 = 자기 신용 + 국가의 보증 (사익+공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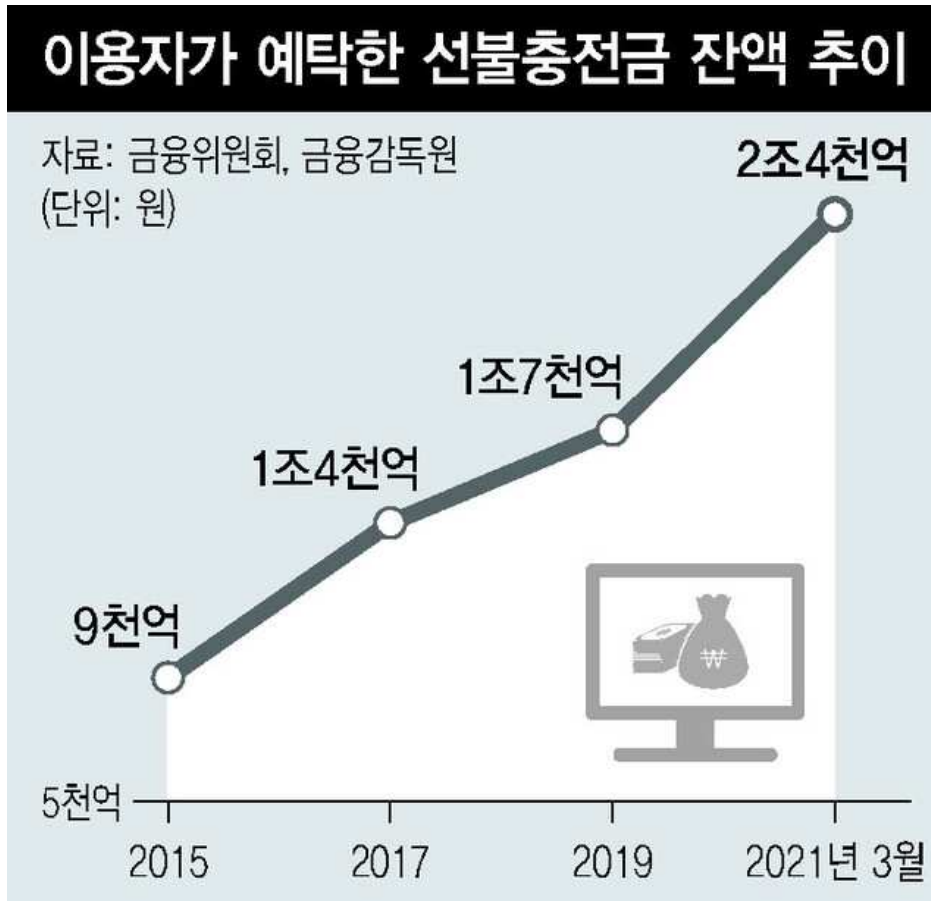
이슈 제기 III: 규제와 혁신의 상충

- ❖ IT 기업이 통상적인 제반 금융 법령 상 금융기관 수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물적, 인적, 설비, 사업 계획 등
 - 금융 외 다른 산업에서 플랫폼 사업을 포기하거나, 금융 플랫폼과 상거래 플랫폼을 분리하기도 어려움
- ❖ IT 기업이 금융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여 새로운 유형의 (IT, 비대면, 온라인) 금융기관으로 법제화하더라도, **대형화된 강한 규제를 받고 금융으로 집중된 사업 구조를 갖는 기업**에서 창의적인 혁신 노력이 나오기 어려움
- ❖ 현재 상태의 전자금융거래법 체제 하에서는 중소 규모 IT 기업,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 기업 및 빅테크에 의한 금산융복합 현상은 증대
 - 금산분리 규제는 존재하지만 원칙은 점차 훼손 (인터넷전문은행법 사례)
 - 선불충전금도 규제의 사각 지대

이슈 제기 IV: Binary Classification?

- ❖ `산업자본 VS. 금융자본`의 이진적(binary) 구분이 작동 가능한 시대?
 - 0 또는 1이 아닌 그 사이의 어딘가 ...
 - 현재는 0에 가까운지 1에 가까운지를 금융당국이 건별로 판단
- ❖ 2020년대인 지금, 두가지 성격을 함께 지닌 기존에 없었던 **새롭고 이질적인 Entity**가 도래한 것은 분명
 - 금융은 중개역할을 하므로 "연결" 인프라 위의 산업 + IT 기업이 "초연결" 기술을 구현 중
⇒ IT 기업이 금융의 가장 중요한 연결의 기술을 선도, 선점
- ❖ **새로운 유형의 금융업자**에 대한 정의와 새로운 규제 기술이 필요
- ❖ 대기업/중소기업의 구분도 전통적 시각 하의 자산 규모가 아닌 기술력 및 플랫폼 이용객수로 구분하는 것이 합당

이슈 제기 V: 선불충전금



출처: 한겨레 신문 기사, '머지'만이 아냐...나의 다른 선불충전금도 보호받지 못한다, 2021.8.17.

❖ 선불충전금 규제와 규제 사각 지대

등록 선불충전금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미등록 선불충전금

전자금융업자

통신판매업자 (전자상거래법)

기타 (예: 스타벅스)

규제 바깥

※ 머지포인트는 통신판매업자



출처: 조선비즈 기사, 2021.4.19.

이슈 제기 VI: 금융 보안 기술 및 보안 거버넌스

- ❖ 보안은 항상 중요하지만, 금융에서는 더욱 중요
 - 오픈뱅킹에서 연쇄 해킹 가능성 →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참여 기관이 보안 기술 개발 영역
 - 모바일 기기 분실에 의한 전 계좌 도난 가능성
 - **초연결 기술에 대한 역공:**
 - ✓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직접 해킹이 아닌,
 - ✓ IoT 기술에 대한 역공
 - ✓ 자동차, 가전, 주택, 컴퓨터, 태블릿 등을 통한 간접적으로 금융 계좌로 침투
- ❖ 금융보안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그리고 금융당국의 협업
 - 보안의 새로운 기준 제시
- ❖ 금융당국의 보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제고
- ❖ 블록체인(P2P네트워크 + 분산원장)이 대안인가?

이슈 제기 VII: 빅테크 금융서비스 범위

- ❖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빅테크의 행태 차이

중국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테크가 거의 전 영역의 금융 서비스 공급• 금융기관 계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테크가 주로 지급결제에 집중• 금융기관과 제휴

- ❖ 한국에서 현재는 빅테크가 금융서비스 산업에서 한 두개 영역으로 만족할 것 같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금융서비스의 범위를 넓혀 가는 중
 - 네이버, 카카오 모두 마찬가지로,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의 전 영역으로...
 - 네이버는 제휴 vs. 카카오는 금융계열사
- ❖ 빅테크가 영위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나 행위에 대한 규제는?

감사합니다!